



### 갑사 괘불 1백년만에 햇빛

**Focus**

국보 제298호 갑사 괘불이 1백년만에 일 반에 공개됐다. 불자들은 7일 갑사 대웅전 앞마당에 높이걸린 이 괘불의 자비롭고 넉넉한 미소의 불보살들을 친견함으로써 이 땅에 극락정토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새년 연을 맞이하게 됐다.

1650년 조성된 갑사 괘불은 세로 12.47cm, 가로 9.48cm 크기로 비로자나불이 화염교리를 설법하는 화염장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단 구도의 괘불은 상단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여 천상세계를, 중단에는 좌측에 노사나불, 우측에 석가모니불을 두고 설법을 청하며, 하단에는 사리불과 범천 제석천 사천왕등 외호중으로 구성돼 있다.

괘불은 옛부터 국가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왕후장상과 전 민중이 모여 한마음으로 야외에 단을 세우고 모신 호국불교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nia.com)

## '청년불자와 세계평화' 논의

### 태국 WFBY 제1회 지도자 세미나

1~7일 태국 방콕 소재 담마신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IEAS)에서 열린 WFBY(세계불교도 우의청년회, 한국본부장·이치란) 주최 제1회 불교청년지도자 세미나에는 한국 내팔 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8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 인류의 당면과제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불교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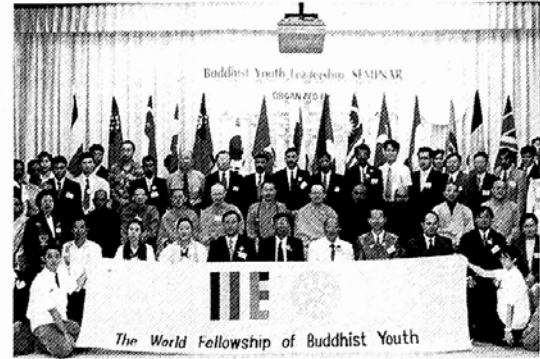
각국 불교대표들은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불교적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 수행, 추진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 8일 귀국한 국제포교사회 부회장 선업님 등 한국대표들은 "한국불교계가 세계불교계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자 조직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들은 "세계청년불교 활동에 참여해 온 대한불교청년회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단체들이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자인 서명사업과 회원증대 사업 등 WFBY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 불교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펼쳐야 하며, 무엇보다 한국불교 종단이 안정적인 기초 위에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WFBY 주최 제1회 불교청년 지도자 세미나 참석자들.

#### 포항 호국해룡사 수계법회

석주 서울 칠보사 조실스님은 28일 오전 군포 교단체인 일불회가 주관하는 포항 해룡대 교육단 호국해룡사 법회에서 수계한다.

#### 태국·리오스 불적 답사

해초 서울 사간동 법문사 주지는 23~29일 태국과 리오스의 불교유적 성지순례를 떠난다.

#### 충남경찰청 경승실 봉불식

법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승실장(수덕사 주지)은 6일 경승실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 감로사 자선 하루차집

해충 부산 감로사 주지는 16일 부산 서면 르네상스 커피숍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

## 교차로

한 감로사 자선 하루차집을 연다.

#### 소직 경찰관 위령제

성인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스님은 18일 오전 11시30분 서내 경승법당에서 제9회 호국소직경찰관 위령천주제를 봉행한다.(032)654-1548

#### 불우이웃에 쌀 전달

우향 성남시불교사모연합회회장 스님은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소년소년가장, 독거노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백미 120가마(40kg짜리)를 전달한다.

#### 격주간 '불교저널 21' 창간

성관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수원포교당 주지는 1일자로 대판 8

면의 격주간 불교종합신문인 <불교저널 21>을 창간했다. 이 신문은 불교문화 창달과 정책성 형성을 위해 정론을 펼치게 된다.

#### 의정부서 경승실 개원

해충 의정부경찰서 경승실장은 20일 오전 10시 서내 4층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연다. 이날 조계종 포교인장 스님이 경찰서법무회 총무인 강성식 민원실장(경사)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한다.

#### 日 세계불교학술대회 발표

목정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10~13일 일본 立正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불교학술대회에서 '심핵(心核)과 물체(物核)'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 '좋은벗들'에 성금 500만원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6일 서울 해화동 금강경독송회 법당에서 사단법인 좋은벗들에 성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또 8일 장충단공원에서 결식노인 점심 무료공양을 실시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에도 공양 후원금 5백만원을 보냈다.

#### '성인병과 식생활' 특강

권기중 동국대 사회교육원장은 16일 오전 11시 동대 90주년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노환섭교수(식품공학)의 '성인병과 식생활' 특강을 개최했다.

#### 군승의 날 기념행사

이희용 군승단은 23일 군승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군승 정기총회, 오후 2시20분(가칭) 군불교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 및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연다.

#### '절, 알고보니...' 펴낸 성재도 원장

#### "절이 중생계에 다가왔으면..."



"멀게만 느껴지는 절을 세상 속으로 부딪쳐 다가오게 하고 싶습니다.

최근 <절, 알고 보니 세상 속에 있더라>( '날마다 좋은날'刊)라는 제목의 불교기본문서를 출간한 부산불교교육원 성재도 원장의 말이다. <절, 알고 보니...>는 11년간의 부산 불교교육원에서의 불교교육이나 우리문화기행 답사 경험을 통해 사찰에 갈 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엮은 것.

성원장은 "눈에 보이는 것속에 들어 있는 불교 가르침, 옛 선지식들의 수행자들의 마음들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책 내용을 소개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nia.com)

## "마음 다스려야 좋은소리 빛어"

### 첫 문하생발표회 가진 주운숙 명창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마음 다스려야 전제돼야 합니다. 바르고 안정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를 때 관객이 감동하게 되더군요."

지난 96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판소리부문 대령명창을 수상한 주운숙 명창(46)이 판소리 다섯마당 중의 하나인 심청가를 29명의 제자와 함께 연이어 부르며 사제간의 정의를 다진 발표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13일 대구 서문문화관에서 마련한 제1회 주운숙 문하생발표회가 바로 그 행사.

매일 새벽5시 한시간의 좌선

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씨는 고령과도 같은 특유의 여정에서 힘겨울 때는 1080배 수련이나 기도 등을 통해 극복했으며, 제자들에게도 늘 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95년 대구에 주운숙 판소리연구소 설립하고 제자를 거두기 시작한 후 4년만에 첫 문하생발표회를 갖는 주씨는 "제자들이 대견하게 여겨지는 한편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선배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심청가 기능보유자이자 우석



대 교수인 이일수 명창과 이명희 명창들에게 사사한 주씨는 판소리의 불모지인 영남지방에서 판소리보급에 매진하고 있다.

주씨는 "앞으로 자질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참된 소리꾼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이윤호 기자(yhlee@buddhania.com)

## 20개 단체에 가입...부르면 어디든 달려가

### 자원봉사 1만시간 표창받은 가수 남강수씨

"별이는 고사하고 사비를 털어 봉사활동에 나서는 남편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을 법도 한데 한마디 불평없이 묵묵히 곁에 있어준 아내(김경애씨)에게 오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남강수 대한불자가수회 회장(61)이 10월27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자원봉사 1만시간 유공표창장을 받았다. 연예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87년 당시 무궁화봉사의 인기회 회장과 인연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하루 3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결과다.

"새벽 4시 집에서 출발해 만남의 광장에서 우동 한그릇 먹고 전국의 이곳저곳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고 회고하는 남씨는 지난 85년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갇살원에서 위문행사를 벌여 왔다. 전국의 노인교실, 주부 가요교실, 경찰청불교회에 나가 음악교습봉사를 실천하는 등 활동 중인 봉사단체만 20개에 이른다.

대한불자가수회 회장을 맡아 불자가수들의 맞춤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남강수회장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인종과 종교, 계층의 차별없이 어려운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를 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 김영한 보살 별세



시가 1000억 원대 요정 대원각을 건설사 회장 김정수에게 시주해 화제를 모았던 김영한 보살이 1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빌라 맨션 205호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51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대원각을 꾸며 돈을 모은 김 보살은 87년 <내사랑 백석>이란 책을 썼으며, 백석문학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동을 받아 발심한 김 보살은 96년 대원각을 보시해 일생을 불교적으로 회향했다.

# 普門寺 海水觀音 造成佛事 募緣文

洛迦山 普門寺는 觀世音菩薩眞身在 在位하는 常住處요, 衆生の 願力에 따라 成就를 충만케 하고 示現을 自在하는 觀音의 聖地입니다.

뜻과 願을 모아 크게 구하면 크게 얻게하고 根機에 따라 이름을 넉넉하게 하니 大悲와 위신력이 普門寺에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항상 加被와 신령스런 感應이 일고 못 衆生이 한량없는 利澤을 입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神通妙用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뜻을 모아 願을 세운 사람들은 實利와 眞味를 맛보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觀音의 聖地에 全國 佛子들의 인연을 모아 한국불교 전통적인 관세음보살상의 아름다움과 이 시대의 예술성이 조화된 海水 觀音像을 한국 조각계의 거장들께 지명공모하여 가장 성스러운 상을 造成 하오니 빠짐없이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德勝은 한중의 勳을 보시하여 훗날 轉輪성왕이 되었고 阿于은 한중의 회사로 영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佛事에 인연을 맺은 사람은 생각마다 觀音이 顯身하여 한량없는 福田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 동참문의

전화 (032)933-8271~3 팩스 (032)933-8270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 동참계좌번호

국민은행 252-25-0003-990 (예금주 보문사)  
우체국 100479-0083202 (예금주 보문사)  
지로번호 7626131